

“복의 상속”

창25:1-11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는 자의 죽음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75 세 부름을 받아 말씀에 붙들려 살다가 175 세에 죽었으니 100 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됩니다. 백년이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어 무덤에 들어가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결국 한 인간이며 한 시대의 인물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씀에 붙들려서 산 인생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그의 나이 75 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 세에 부름을 받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5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 되는 데는 무려 25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1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한 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만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무려 6 백여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은 오직 말씀에 붙들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도 힘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나 위기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서도 막상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늘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버리지 못하게 불드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최상의 조건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실수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넘어졌고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 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욕심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과 뜻에 굴복시킬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멋진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믿음의 썩이 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성령을 통해 믿음의 썩을 나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이 어디까지 변화할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스티븐 스코트(Stephen Scott)라는 사람은 성경 읽기로 지혜를 얻어서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 9 번이나 직장을 잃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별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그는 한 백만장자를 만나게 되어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일 성경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2 년 안에 사장보다 더 똑똑해지고 5 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은 그날부터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솔로몬 부자학 31 장”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한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홉 명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만 평안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곧 바로 의심에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구원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체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버리고 빼앗기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버리면 더 풍성함과 부요함을 얻게 되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부터 그는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비운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3. 택함 받은 인생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명문대가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만큼 인류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택함은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택함을 받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비참한 최후가 되었고 그 자손들도 다 망해 버렸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택함 받고 실수는 있었지만 한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며 인류를 구원하는 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 복이 계승되는 인생

“(창 25: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허락하신 복을 이삭에도 주셨습니다. 복의 계승입니다. 이삭도 택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잇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가 아닙니다. 순전히 부모 덕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 25:5-6)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그냥 부모를 잘 만나 한국에 재벌들의 자녀같이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유산은 오히려 자녀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복은 영구한 것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복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승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도 오순절 사도행전의 교회의 정신과 사명이 계승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 천년 전에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 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상속과 계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스티븐 스코트의 예화를 통하여 각자에게 도전된 부분과 실천하기로 결단한 부분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여러분을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 구원 받은 이후에 뭐든지 행동할 것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비우게 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 버림과 비움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은 무엇입니까?
5. 부모로부터 계승 받은(혹은 자녀에게 계승 하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을 계승 받기 위해(계승 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의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6. 4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목장별 100일 성경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하면서 느끼신 점(어려웠지만 고비를 이겨낸 경험들과 말씀을 통한 은혜 등)들을 나누어 주시고, 완독을 위해서 합심기도해 주십시오.